

社說

대학理念를 재구축해야

—2 학기를 맞으면서

'86년 2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동안 고요하기만 했던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번 학기도 충실한 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바람이, 그 방향으로 대학의 발전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대학은 먼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또한 인류의 유머니즘의 신장과 유로피아의 실현을 위해서 대학은 존재한다. 우리의 첫째 과제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가르치고 배우고 민족의 미래의 번영을 가져오게 할 대학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족의 대학의 역할을 구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의 미래의 힘은 현재의 우리들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통찰하고 자각하여 뚜렷한 역사적, 민족주의적, 현명한 현실관과 정당한 가치관을, 그리고 또 좁은 세계관과 깊이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개선의 강인한 의지를 가질 때, 우리민족의 미래는 밝게 열리고 과거역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민족의 活路는 민족의 교육을 받은 대학교육에 의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대학들은 어떠한가? 아무런理念 없이 방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구체적, 역사적 현실과 유리된 이미 낡은, 또는 왜곡되고 오염된 힘없는 지식만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正義와 事實과 창조적 현실개선의 論理를 외면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 일과 그일을 하도록 부여된 직책에는 힘이 주어지는 만큼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회적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책임의식,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가? 진정한 지식인은 진정한 지식인에 의해 교육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때문에 교육자와 교육내용, 교육목적에 대한 반성이 민족을 위한 교육이라는理念에 의해서 끊임없이 행해지는가?

실로 대학에理念이 없다면 진정한 대학교육은 불가능하다. 대학이 살아있지 못할 때 국가와 민족의 청명도 오래가지 못하고, 따라서 민족의 미래는 없다. 대학이 지식과 가치라는 훌륭한 나무를 키워낼 때, 그 든든한 가지에서 기술과 문화의 꽃이 핀다. 대학은 그가 가진 최상의 교육력과 연구력을 증진시켜 젊은세대의 힘을 기르고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 대학의 힘을 약화시키는 대학내부의 분열과 혼란, 사회나 국가로부터의 대학의 유리나 대립상태는 대학의 진정한 이념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민족의 대학의 이념에 의해서 우리의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이념 아래에서 대학이 국가와 사회와 화합하고 대학내에서 단결한 대학이 가진 에너지는 민족과 국가의 성장발전에 온통 쏟아질 수가 있다.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는 대학을 보호육성하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되고 대학은 국가와 사회에 창조적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또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대학을 획일화시키거나 통제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다양한 사고와 지식과 그 표현을 억압함으로써 결국에는 국가의 힘의 손실, 민족의 힘의 손실을 가져온다. 민족의 잠재력을 생각하기때문에 대학은 가끔 현실의 논리와 현재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채 그것을 비판하고 나설 수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혁명처럼 당장의 현실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대학은 지식과 가치를 계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인간과 현실의 변화를 도모한다. 그 변화는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이다.

그래서 대학과 그의 교육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나 만큼 분명한 이념을 필요로 한다. 이념이 없거나 그것을 망각한 대학은 방학하게 되고, 그것은 곧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새학기를 맞으면서 다시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이념을 분명히 하여 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대학의 힘의 날개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개론



◇학문의 길도 百八煩惱다!

가을에 띄우는 총장의 메시지

"濟大人으로서 긍지와 정체성을 가져야"



총장 김두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속의 대학을 지향하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외형적 성장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며 9월 5일 1천 5백 명을 가진 중앙도서관도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일교포 독자가 강구범의 도움으로 10억 규모의 국제적인 해양연구소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일본의 해양연구소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내적 충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내적 충실은 바로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면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교수들이 의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실한 면학기풍을 정착시키는 데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과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학기에 우리대학 사회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대학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진통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량과 관란을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다도 학원안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학 자율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학원이 안정되어야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대인으로서의 正體성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체성은 나는 제대인이라는 소속감입니다. 보통 한 개인이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제대인으로서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도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고 하였습니

다. 자존심이란 바로 나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신하고 자기는 물론 남을 위해 선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대학에 다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 작업인 부리를 바르고 튼튼히 내야 합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지반을 튼튼하고 바르게 쌓아야 하는 시기가 대학생활입니다.

대학은 삶의 자세, 방향을 정(正)으로 똑바로 잡아가는 교육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못사는 일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정도(正道)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대학에 다닙니다. 대학은 인생전체를 보는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곳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수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나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학 생활에서 강의, 독서, 교내외 활동,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과 발전을 해 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교수들과의 대화는 자신의 학문적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야를 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 믿는 마음이 없을 때 대화는 단절되고 오해가 생기고 교육은 끝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전락해 버리고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네째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 인간이라는 긍지는 무엇보다 큰 활력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노력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 책임질 수 밖에 없고 자기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회가 발전하려면 급진적이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생각보다는 중용의 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 공정을 기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인가를 검토하는 것, 양보하고 화해하는 것 등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인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고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학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大學의變化—교육계획 및 제도의 점진적 수정을 바라며

類似教科통합, 미래사회適應에 필요한 다양한 教科편성을



현대는 인간활동의 파급효과 확대로 인하여 사회변동의 속도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諸現象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폭과 깊이에 도한 어느때보다 현저한 현실에 비추어 교육도 미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러 선진국들은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의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개혁이 보통교육의 수준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면 고등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해 中核文化圈에서 봉사할 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라는 함축적 밀려 여행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실천적 의미를 확인하고 창조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진국의 대학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사회의 변화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내지는 대중화 추세이다. 초기 대학들은 특정사회의 지도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수 엘리트층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었다. 대학의 대중화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생존의미의 확산등에 힘입은 시민의식의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거의 전통에 의하면 대학을 특정지

관한 체계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선 이것은 편견이나 독단과 구별된다. 학문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편견과 독단으로 과거에 있는 미신과 무용한 전통과 질명·기아·빈곤을 인류생존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학문의 발달은



이완정

교육대학원교수·교육학

인류에 대하여 사물의 진상을 깨닫고 무지에서 오는 불행과 고통을 제거하는 한편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하여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을 조직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학문활동은 대학의 담을 넘어서 사회 각 분야에 수렴되기에 이르렀고 어느 분야에서든 대학은 오히려 기초학문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 한 학문의 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종래의 우월의식을 버리고 다양한 유형의 기초학과 인간의 만남을 조성하여 생의 가치를 재창조하여 나가는 창조이며 인간의 제 2차 성장을 위한 探索過程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학은 여러부류의 학문과 학문사이에 밀접한 학습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위해 有意味하고 有價值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여기서 결코 학문이 완성되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학문과 인간의 만남이 학살의 이상과 미래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분야에 있어서의 학문연구는 비로소 본격화되고 전성기에 걸쳐 추구된다. 따라서 학문의 계속적인 추구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은 學問水準에 따른 단계별 분화가 있어야 하며 사회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학술활동도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대대학이 변화하고 있는 특징으로 既成敎科의 統合現象을 들 수 있다. 과거의 대학은 특정 학문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인정 받아온 분야를 흔히 「專攻」이라는 성벽안에 파고들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그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느냐를 확인할 여유도 주지 않고 전공이라고 불리우는 성벽안에 갇혀서 지내며, 이것이야말로 정통성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批判이 고조되었으며, 대학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學習者를 위한 교육기관이 되기보다는 학문운영자의 이기심이나, 인간사회의 自然淘汰로 보는 進化論의 敎育計劃家들의 무책임성에 연유한 것이라는 敎育哲學者들의 주장도 대학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진정으로 대학이 인간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학문간의 벽을 낮추고, 전공필수로 요구되는 학점을 축소하는 한편 학습자가 자유로이 여러 학문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소양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組織理論, 情報處理理論, 自由敎養, 精神衛生등이 일반 학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의 대학들은 너무 위축되어 있다. 敎授中心으로 敎育課程을 운영할 때 생기는 교과과목의 과잉분할 현상은 교과목의 수만 늘리게 될 뿐 실제에 있어서 교과과목의 중점을 약화하고, 그만큼 다른 학문교과목의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간성장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그 방해요소가 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이제 우리의 대학들도 기존교과목을 통합하고, 전공학점의 요구를 절감하는 한편 학습자가 제 2차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와 미래사회의 적응에 필요한것으로 생각되는 교과와 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네째, 선진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교수와 전문연구원의任用과 교수의 교훈은 기능적 우수성만으로 국가는 발전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 고전주의적 교육에로의 복귀현상이 일고 있다.

그밖에도 국제간 학문연구자의 교류, 재정지원, 정보매체의 현대화등의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생각한다. 대학은 모든 국민을 위한 大衆敎育機關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사회의 대학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계속되는 한 대학도 사회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大學이 변화하는 사회에 適應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豫測力을 길러야 하고 여기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自體整備의 努力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Technopia

금성의 尖端技術이 펼쳐가는樂園

光技術이 생활을 편리하게, 즐겁게 한다.

이제 시대는 전기시대에서 빛(光)시대로—
光技術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쇼핑은 물론, 은행에 입출금도 자유롭게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원할 때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해결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자재입니다. 특히 멀리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더욱 풍요롭게—
이것이 바로 금성의 첨단 光技術이 이룩하려는 테크노피아의 세계입니다.

高度情報化社會를 앞당기는 금성의 尖端光技術

이미 10여년전부터 첨단 기술의 광기분열에 접어들어 금성은 세계적으로도 앞선 광전송장치, 광통신, 광영상장치 등 광기술을 첨단 기술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레이저프린트, 레이저가공기 등 이미 개발해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이미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저 다이오드, 정보고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광통신, 광디스크화면 등 미래에 광기술을 이용한 발전장치, 광영상장치 등 광기술을 앞당기고 있는 레이저기술 등 광기술의 개발, 광기술에 관한 금성의 앞선 기술력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人間·技術·未來

테크노피아

학술 경제적 측면에서 본 韓-美관계

무역·자본·기술거래등에서 對美 의존도가 높다

경제외교전개·품질향상및 기술개발로 경제체질강화 시급

I
70년대말까지는 그러대로 원만한 관계를 추진해 오던 韓-美 경제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美측하면 우리들은 6·25 때 공산침략을 막기 위하여 합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60년대까지 많은 경제원조를 해주던 고마운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서 美-韓 경제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美-韓과의 무역에서 약간의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자 여러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해 오다가 지난 7월 21일 韓-美 통상합의협정(FTA)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시장을 거의 완전히 개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환율문제까지 협의하자는 제의까지 하고 있다.

있는 美生·損保社의 추가진출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②저작권·소프트웨어 : 이에 대한 합의내용을 보면 외국인 저작권보호를 위해 세계저작권협약(UCC)가입을 추진해서 오는 87년 하반기에 발효를 한다는 것, 또 음반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네바 음반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과 美-韓 저작권의 복제에 대해 10년의 소급효를 인정하기로 했다. 즉 한국은 UCC 발효 전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발행된 美-韓 저작물까지도 새로 복제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김 문 관
사회과학대 교수·무역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해 내기 위해 대외자원을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능력에 합당한 수입개방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우리 능력을 넘어선 수입개방을 해야 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韓-美 통상합의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수입개방 내용, 70년대말까지의 韓-美 경제관계 및 美-韓이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압력의 배경, 우리의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며 무단복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단 번역의 경우는 제외된다. 복제분야에 대한 이러한 저작권의 소급효는 UCC의 본소급원칙에도 어긋나는 예외적 조치로 美-韓이 합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보호조치를 법으로 하지 않고 행정조치로 하기로 했는데 법으로 보호할 경우 UCC 규정에서 다른 나라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저작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별도 입법을 만들기로 했다.

‘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2천수백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우리나라에 개방압력을 강화, 현재 보험·저작권·소프트웨어·물질특허·담배등 점차 개방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③물질특허 : 물질특허의 보호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으나 日本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간특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간특허제도는 의약품의 특허를 받은 후 상용화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임상시험·검사기간을 보호기간에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미생물특허도 인정하기로 했다. 즉 유전자기술로 성장호르몬·글루카곤·비타민 등 생물학적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이것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④담배 : 이것은 담초 통상법 301조에 해당하는 상품이 아니었는데도 금년 9월부터 개방하기로 되었다. 금년에는 6백만갑, 내년에는 4천만갑 정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II
韓-美 통상합의협정(FTA)에서 개방하기로 한 것은 보험·저작권·소프트웨어·물질특허·담배 등이다. 여기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개방된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본주의 생산에서의 美-韓의 생산은 여러 선진국에 비해 서서히 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만 아직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美-韓은 경쟁무역에 이르는 이른바 통상법 3백1조안 그들이 만든 무역보조조항을 내걸고 서비스산업 개방을 우리에게 요구했고 결과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II
韓-美 통상합의협정(FTA)에서 개방하기로 한 것은 보험·저작권·소프트웨어·물질특허·담배 등이다. 여기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개방된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본주의 생산에서의 美-韓의 생산은 여러 선진국에 비해 서서히 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만 아직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美-韓은 경쟁무역에 이르는 이른바 통상법 3백1조안 그들이 만든 무역보조조항을 내걸고 서비스산업 개방을 우리에게 요구했고 결과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서비스산업의 국내기업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美-韓 산업과 어느정도 경쟁할 단계에 와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던 이면에서 개방된 압력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보험 : 이번엔 타월권 보험개방협정(ATA)과 CIG A 동기금과 2개 美-韓 보험협정이 곧 국내 화재보험에 능동참여하고 올해말까지 1개 美-韓 보험협정이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

②항공 : 2~3년내에 자격

는 원조, 둘째는 무역거래, 셋째는 자본거래, 네째는 기술거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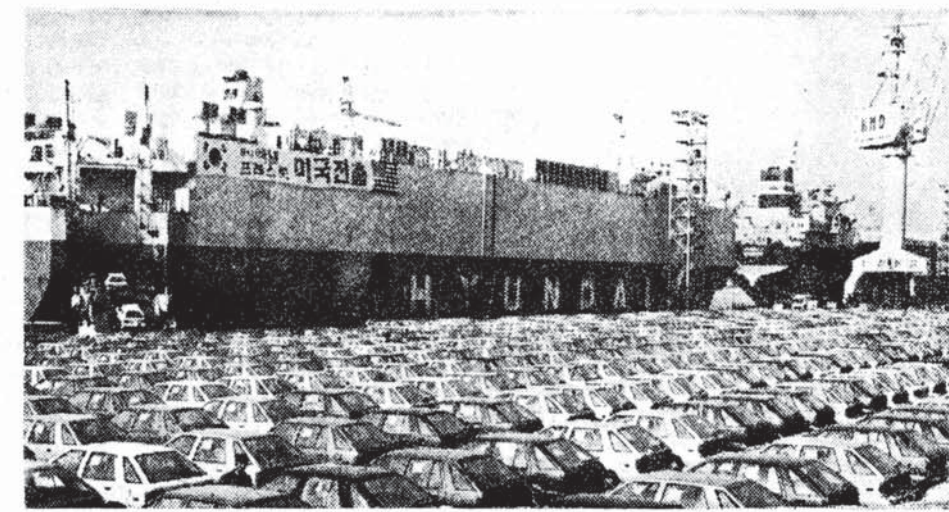
우선 원조에 대해서 보면 1945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8억달러의 원조 원조를 받았다. 이 액수는 이 기간중 한국의 총 GNP의 4%를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韓-美 경제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美-韓 양측은 있으나 6·25 이후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문제 인적자원개발등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주로 소비재였으나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62년 이후에는 資本財도 들어 오기 시작했다.

다음에 무역을 살펴보면 '60~'70년대를 통틀어 우리나라는 美-韓에 대하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다른 자원이 없는 데다 얼마남지 않은 생산시설도 6·25로 파괴되어 축적된 기술도 자본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60년대초의 우리나라의 수출액수의 기록이다. '60년대 수출액수는 1960년 1억 3천만달러로 시작되었고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62년에는 5천 4백만달러로 수출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2년 이후 수출액수가 급증해 나갔는데 '60~'70년대를 통틀어 수출액수가 1960년 1억 3천만달러에서 1970년 10억 4천만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1971년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게 되자 당시 내수대통령은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수입과출입을 도입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78년에는 경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카터정부는 달러방위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라는 한편 F.R.B에 의한 통화공급 관리를 종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레이건정부는 이르러서는 대대적경축을 취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나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되었다. 이 기간을 태만정치시대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1971년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게 되자 당시 내수대통령은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수입과출입을 도입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78년에는 경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카터정부는 달러방위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라는 한편 F.R.B에 의한 통화공급 관리를 종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레이건정부는 이르러서는 대대적경축을 취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나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되었다. 이 기간을 태만정치시대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1971년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게 되자 당시 내수대통령은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수입과출입을 도입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78년에는 경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카터정부는 달러방위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라는 한편 F.R.B에 의한 통화공급 관리를 종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레이건정부는 이르러서는 대대적경축을 취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나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되었다. 이 기간을 태만정치시대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1971년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게 되자 당시 내수대통령은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수입과출입을 도입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78년에는 경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카터정부는 달러방위책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라는 한편 F.R.B에 의한 통화공급 관리를 종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레이건정부는 이르러서는 대대적경축을 취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나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되었다. 이 기간을 태만정치시대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국은 이미 자동차 퍼센트 컴퓨터 컬러 TV VTR 등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되는 국산자동차)

유·화학이 1백 6건, 전력이 33건, 식물이 28건 기타등이다. 이 기간중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 3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이 상에서 원조·무역·자본·기술거래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거니와 원조와 80년대 들어서서 약간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어느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와 경제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韓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다.

黑白이 知者는 不音인가

同意 要請에 대한 可否의 응답은 외교관과 여자에게서 서로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다. 국제 외교의 경우 Yes는 Maybe 정도로, Maybe는 No로 해석해야 하며, 국제간의 협력 요청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No라는 응답을 하는 외교관은 이미 외교관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남자의 데이트 신청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No이면 Maybe의 뜻이고 Maybe이면 Yes의 뜻이라 할 수 있고, 처음부터 Yes라는 대답으로 나오면 여성 매력 열정이라는 말이다.

언어 사용의 복잡성이 인간 생활의 복잡성을 말해주는 재미있는 예라고 생각되지만 이같은 얘기는 어디까지나 해학적인 世態素描에 불과한 것이기 구제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千慮萬慮의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하겠다. Jane Austen의 소설 「傲慢과 偏見」에 나오는 머릿통한 목사 Collins는 매력적인 시골 처녀 Jane Bennet에게서 결혼신청을 거절당하자 그것을 여자들에게 으레 걸기 마련인 수줍음 탓으로 돌리고 열치없이 계속 지분거려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소설속에서 Jane의 어리숙한 동생 Lydia는 表裏不同한 전담 Wickham의 거짓된 애정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불행한 자초하고 있는데, 이처럼 남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주는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간의 언어가 어느 정도나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는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리하여 언어가 인간 세계를 얼마나 정확히 규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異說 蜂起가 생긴다. 19세기초의 독일 철학자 Humboldt는 「언어 없이 개념이 없는 것처럼 언어 없이 사물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은 자기의 언어가 제공하는 것만큼만 세상을 알고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국 고대의 「老子」는 「言은 말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知者不言, 言者不知)라고 말했다. 또한, 「太初에 말음이 있었다」는 기록과 사상은 달리, 「老子」는 「道로 표현되는 것은 영구적인 도가 아니라」라고 하였다(道可道, 非常道) 로고스(理性·論理·言語)를 추구하는 서양정신과 道를 중시하는 동양정신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바, 前者가 有形的인 것, 生成變化하는 것, 差別의 인 것을 중시하는 반면에, 後者는 無形的인 것, 不變의 것, 無限의 것을 중시하고 있다. 「色即塵垢, 空即涅槃」이나 「無始無終」을 말하는 佛敎思想도 논리적인 과학정신과 대비되는 면에서 東洋의 特色을 보여주고 있다. 東西洋 정서의 차이는 결국 언어의 의미를 有形的인 것, 歷史的인 것에 한정시키느냐 또는 無形的인 것, 永久的인 것으로까지 확대시키느냐 하는 차이일 것 같다. 沈黙도 하나의 言語인다는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글을 쓸 때의 고충과 글을 읽을 때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유형적 언어의 한계성은 명백해진다 하겠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다고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나타내 줄 적당한 언어가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끼는 반면에, 남이 쓴 글을 읽을 때에는 「너 정확하게 말해서, 정성껏 쓰여진 글을 정성껏 읽을 경우에는」 일가에 나타난 언어 이상의 의미를 看取하는 법도 있는 기쁨을 맛본다. 「老子」의 「不言之言」이 갖는 言外의 의미를 차려와 「노」의 眞意를 알게 해 주는 어떤 것, 석가모니가 손에 든 연꽃을 보고 그의 제자 가섭이 지어 보였다는 拈華微笑를 가능케 해주는 以心傳心의 어떤 認知手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현대의 시대는 언어 사용의 면에서 볼 때도 무질서와 무절제의 極을 향해 달리는 것 같다. 정치선언과 상업광고의 眞意를 잃은 空 亂語 世態의 실상을 간파한다는 것이 없는 인생수업을 요구하고 있고, 수많은 학자와 작가들은 뜻에 얽매는 것을 복잡하고 깊은 것을 길게,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이다. 이러한 言語洪水·活字公冶의 亂世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도로 세련된 언어감각과 분석력을 키워야 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때때로 「沈黙의 言語」를 갖는 「沈黙의 言語」, 「沈黙으로부터의 언어」보다는 「자기 마음속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필요할 줄 안다. <Y>

원고모집

교지편집위원회에서는 제27집 「제대학보」 편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 시·수필·회화·소설·평론·논문
△원고양식 : 시·1인 3편이상
수필·2백자 원고지 20매 내외
회화·소설·평론·논문·2백자 원고지 50매 내외
△마감일 : 1986년 9월 15일 (월요일)
△접수처 : 총학생회 학술회
※교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교료를 지급합니다.
1986년 8월 30일

교지편집위원회

공 고 문

COMPUTER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용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이미 등록된 이용자중에서도 계속해서 COMPUTER를 사용하실 분은 재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재신청을 하지 않을시에는 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 등록기간 : 9월1일~9월27일 (단, 토요일은 제외) (오후2시부터4시까지)
2. 등록장소 : 전자계산소상당실 (교육부)

※신청시에는 사진1매와 도장을 지참할 것.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장

開 白雲洞書院 院

考試와 生活의 殿堂 : 道內最高級考試院 院

●考試를 指向하는 젊은 學徒들

여기 漢學山 맑은 精氣 아래 學問 研磨에 점을 불사르겠다는 學徒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考試院을 開院하게 되었습니다.

司法·行政·考試·七·九級·昇進試驗을 위한 諸般條件完備

▲특징 : 총정원 18명 정원제 (철저한 규율로 학습분위기 만점)
고급집대, 개인용 고급책상 및 의자, 조명시설완비, 각종서적(시험대비용) 교시자료비치, 신속한 시험정보제공, 수험생활을 위한 충분한 영양식 제공, 지방생 호조건(하숙불필요), 세탁장 및 샤워장 완비, 저렴한 가격(티켓 및 하숙제 선택가).

※一次 내방하여 직접 시설과 분위기를 확인바랍니다.

고시원 전화문의는 ☎ 6086 5392
제주시중앙1동 2816~1번지
(터미널동종잡구에서 적십자회관으로 150m지점)
濟大生 특별할인

향토자료 소개

복사·제본의 집

유진사

저희 유진사에서는
일단복사는 물론
갖가지 향토자료들을
저렴한 값으로
소개에서부터
복사·제본까지
우리집을 찾는
모든 분들께 해 줄리고
있습니다.

유진사 대표 김 유 진

제주시청 뒤편
전화 52-5806

병 무 안 내

국가 발전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시는 학생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에 전념하지 않으려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병무안내를 실시합니다. 병무안내는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는 병무안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병무안내는 학업에 전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병무안내를 실시합니다. 병무안내는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는 병무안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병무안내는 학업에 전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병무안내를 실시합니다.

제주지방병무청장

학술

『이재수 亂』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서설



김 건 일
사회학과 4년

1. 머리말

역사는 좁게는 그 민족사회의, 그리고 넓게는 인류사회의 앞길을 바로 잡는 방향타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 시대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해 지도원리를 확립해 나가는 일은 중대하고도 객관적 차원에서 그 사회의 흐름을 무시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서술은 최근들어 보다 정교한 이론적인용과 분석용구를 사용하여 전체사회의 일반적 유형을 찾아내어 하나의 지적이 있어왔다. 즉, 인간사회의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시각을 분명히 정립함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사회학과 역사학의 협동 내지는 보완적의 출발로서 사회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가 형성되어 변동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사회학적 이론과 관점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해석한 역사'로 정의되고있으며 이러한 사회사 혹은 한국사회사는 한면에서 보면 사회학이 되고 다른면에서 보면 역사학으로 간주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편향주의로 흘렀거나 지나치게 특정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 글의 주제가 될 '이재수 亂'의 성격에 대한 논의이다. 다시말해 1860년대에 발생한 한 사건이 史家들의 입장에 따라서 관이하게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입장은 합의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평행선으로 치달음으로써

반제·반외세·반봉건적인 성격을과악
민중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 해야

그 사건의 역사적 위치설정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앞서 제시한 사회사의 맥락에서 '이재수 亂'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의 흐름을 정립하려는 작업을 위한 서설(序說)적인 입장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2. '이재수 亂'의 성격에 관한 논쟁

1901년 제주에서 발생했던 '이재수 亂'은 사건의 희생자가 너무 많았을 뿐 아니라 한 외래종교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반항으로 나타났던 점에서, 또 외국 신부와 관련된 국체문제까지 발전하는 추유증을 치러야 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근대사에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민란에 대하여 천주교측의 史家들은 교도의 희생을 강조하여 영구敍難, 또는 濟州敍難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난의 원인이 제주도에 토착세력들이 일본상인과 결탁하여 亂을 사주, 선동한 것으로 이 亂은 한국사에 있어 그 후천적인 근대세계에 폭로한 수치스런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반면에, 향토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신부의 세력화 교도들의 횡포를, 혹은 본세력의 마름으로 갖은 횡포를 부린 불합리한 교도들의 소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주동자인 이재수등은 정의에 입각하여 도민대중의 민생과 인권을 싸움으로써 지킨 자랑스런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천주교측 史家들과 郷土史家들의 입장으로 크게 대립되어 敍難이나, 亂이나, 그리고 불기뻐한 민중이 폭도나 외산이라는 질문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즉 1983년에는 吳成贊씨가 '마당'誌에 1980년의 김충현씨의 '제주도신속년교사'와 1982년 김태능씨의 '제주도사'를 비교하여 '이재수 亂'의 제주도민은 폭도가 아니었습니까'를 그리고 玄基榮씨가 '반면에 우짖는 새'를 각

각 발표하자 宋向一씨는 제주신문에 '역사를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역사학을 폭도·의인등으로 도식화하는 판단은 사교의 미성숙이라고 꼬집으면서 앞의 입장을 공박했다. 이에대해 吳成贊씨는 같은신문지상에 '역사'란 것은 진실의 올바른 기록이 아니라 편견의 집합체'라는 논설을 게재하면서 '이재수 亂'을 폭도사학자들의 편견을 반박하고 나서으로써 이 논쟁은 합의를 찾지 못한 채 계속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3. 주장의 주요쟁점과 의문점
역사에 대한 이와같은 시각의 차이는 결국 역사발전에 도움이 될수 없다. 물론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기준이 바로 역사의 현재성에 있다고 보면 그 진실성이란 결코 선입적이고 영구불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인비의 지적처럼 알기 위한 역사지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역사지식, 혹은 역사는 과거의 도피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대결이란 점을 감안 한다면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제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수 亂'도 역사의 주체인 인간중심의 역사로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수 亂'은 '吳信洛노인의 죽음'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1901년 5월초부터 6월초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 민란으로 제주읍에서 완전히 점령 당하고 양쪽에서 5~7백명이란 대량 피살사 및 순교자를 발생케 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순교였든 학살이었든 간에 제주도민끼리의 상쟁이었다는 점에서 일대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재수 亂'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설명은 역사의 주제가 되는 인간, 다시말해 민중의 입장을 반영한단기보다는 천주교측은 교회의 입장과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 급급하고, 향토사학의 입장은 난의 배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 없이 일부 주동자만을 영웅시

하거나 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있다. 그러기에 이 亂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선 양측 주장의 주요쟁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건발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吳信洛노인의 죽음'에 대한 향토사학의 입장은 천주교도들이 吳노인을 포함한 3명을 천주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당으로 끌어들여 심한 매질과 고문 끝에 吳노인을 죽게 만들자 도민들은 교도들을 성토하는 민중대회를 열고 州城에 들어가 호소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히는 반면, 천주교측은 P. Marcret Lacroux신부의 서간문을 인용하면서 吳노인은 자살한 것이 고 정의목사의 정치적인 자기 실책에서 비롯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려는 극한의 노력이었으며 천주교에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라고 단정짓고 있다.

두번째로 합성신문에 실렸던 廣濟報의 '교제'에 대한 보고서에 향토사학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천주교측 사학자들은 기사전체내용이 도무지 그 당시 입도하여 전교한 제주도 천주교회 사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들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특히 김충현의 '교제'에 대한 조목조목 천주교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데 예들들면 '사람들의 처참을 간한' '제주도의 난' 당시 폭도들이나 지방관리들과의 계책에서 짜 올린 爲文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폭도를 받고 쓰여졌는지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세째로 상무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향토사학자들은 외지세력에 대한 자위보호책의 하나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반면 천주교측 사학자들은 일본 어업자와 결탁한 일부 지주층이 재산증식과 탐욕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양측 주장의 정점이 되고있는 점은 매우 많지만 앞에서 살펴본 세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뚜렷하

다. 이들의 주장들에서 역사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천주교측의 경우 자기의 논리와 맞지 않으면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다가도 믿을 수 없다고 무시해 버리거나 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제주도를 미개지라고 전체해버리는 등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편견속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여기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의문은 천주교측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특히 서간문)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상무사는 일본인과 결탁하여 탐욕해했다고했는데 그 결정타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주도의 문화, 즉 전통신앙들을 미개한 것으로 규정짓는 것은 지나친 자위와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는 점들이다.

또 향토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한국전세사에서 제주역사를 파악하기 보다는 수년의 입장에서 도민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나 민중세력의 결집과 저항의 문제는 도외시해 버리고 천주교의 폐해를 사실보다 확대해석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다.

4. 당시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후반, 즉 1876년에는 병자수호조약의 후과 해국정치가 붕괴되고 동시에 일본과의 개항을 시작하였고 1886년에는 한일통상조약이 체결되어 개항한 이래 일본과 구미열강에 대한 제국주의 침입이 시작되었으며 18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미 조선은 식민지와 과정에 놓여 있었다.

특히 조선은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적 종속화와 외왕내제 국외의 불평등 조약체결을 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인 신부와 천주교 조직체제를 국가기구나 동일인 연합과 구별로 인정하여 됴으로써 천주교의 교세와 권위를 바탕으로 한 힘의 집중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을미사변과 아관파천등을 거치면서 국내의 정치는 혼미를 거듭하고있고 1897년의 광무개혁은 봉건지



○1890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재수 亂은 제주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1901년 당시의 제주도를 그린 그림은 제주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세력에 의해 제도상의 근대적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설계를 지닐수록 오히려 봉건적 모순이 심화되고 수취구조의 개혁이란 명목아래 농민에 대한 수탈이 가중되고 봉세관의 폐단은 봉건적 수탈기구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재수 亂'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정치적으로는 치외법권을 확대하여 조선인 교도에게 까지 적용시킨데 오는 주민들과의 마찰, 경제적으 볼 때 봉세관과 결탁한 교도들이 조세징수를 담당했고 봉세관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아 기존의 각계층과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외래종교의 갑작스런 유입은 토착신앙체계를 위협하면서 전통적 가치체제와 심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수있었다는 점을 생각할수있다.

'이재수 亂'을 이와같이 세계적상황과 우리나라의 전체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지금까지는 의해왔던 천주교회측과 향토사학들의 입장이 크게 좁혀질 수 있다고 보아진다.

5. '이재수 亂'의 구조와 성격

Blumer는 사회운동을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룩하려는 일종의 집합적 기동이라고 설명한다. 불안한 조건에서 잉태되어 그 원동력을 한층으로 하는 현실적인 삶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새로운 불이나 체계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에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생애는 처음에는 무형적이고 조직도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며 형식이 없고 매우 원시적인 군집행동에 머물러 있어 상호작용의 기제도 초보적이라고 그것이 전개됨에 따라 사회운동은 사회의 형식을 갖추게 되며 조직과 형식을 띠고 관습과 전통의 폭을 가지며 자리잡힌 지도자가 생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운동학적면에서 '이재수 亂'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것은 사회사적의 미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몇가지를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참가층의 구성과 동원은 재구성을 중심으로한 상무사의 조직을 우선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오랫동안 대외적으로 갖은 수탈과 압박을 받아오면서 외지세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일본인 어로업자의 침투, 관리의 가법구조들의 자극이 있을 때 마다 단합하여 대적하였는데 이러한 자주의 역량은 점차 성장하여 외부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체를 설립한 것은 자위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이 조직을 중심으로 사발봉문을 통하여 각마을 대표에게 전달하여 민중들에게 성공한 것도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 있었음을 말해 주며 각 계층을 총 망라하여 통일할 수 있는 것은 도민들의 자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민중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통제는 관의 무력으로는 불가능했으나 1차단계인 비무장 정소선봉하고 발포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1차단계에서의 통제는 오히려 사회운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아 2차단계에서는 민중의 무장투쟁으로 주성을 함락시키게 되었다.

세째로 이 운동의 공격목표와 욕구수준은 교제를 시정하고 봉세관의 횡포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법지향적 차원이었으나 사태의 발전에 따라 주성의 교도들을 살해하기에 이르러 오늘날까지 전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를 빚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이재수 亂'의 평가에 대한 논쟁, 그리고 각 입장의 주장과 의문점, 당시 우리나라 전체사회의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배경과 '난'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 보았다. 이 글은 '이재수 亂'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서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각 부분에 대해 필요로 있는 조명을 하지 못하고 다만 의견제수준에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한 시대의 역사를 확고히 정립하는 작업은 그 사회, 그 민족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공헌하는 것이며 오늘날 사는 전 인류에게 도도히 흐르는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이재수 亂'의 올바른 역사적 정리와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여러 자료를 섭렵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느낀 '이재수 亂'을 재평가하기 위한 몇가지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말의 천주교는 프랑스의 제국적 침략과 결부된 정치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주체적 사실과 식민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써 정치적혼미상태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이재수 亂'은 반 천주교 운동의 근저에 반제, 반외세, 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세째, 이러한 운동에 대처한 민중들의 행동양식을 민중운동사적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작업이 보다 밀도있게 시도를 해 오늘날 천주교회와 향토사학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폭은 좁아질 것이며 제주근대사의 확고한 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전물에 아름다운 이름을』



「아라는 우리의 요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총학생회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교과·교훈바로보기』 『학교발전기』 『공공시설물 아껴쓰기』 등 학교사랑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실현은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으나 애교심을 고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2 학기와 더불어 이러한 행사를 다시 우리들 사이에서 고조시키고 우리들의 발달은 도로나 건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이름을 붙이자는 세력이 일고 있다.

우리 대학은 자연적인 것이 풍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가 맑고 주위가 한적하기 때문에 타 대학과는 달리 면화와 정서순화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인문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은 약간 벼룩로 지어져 있어 이국적인 것이 느껴지고 하고, 농과대와 해양과학대 옆 도로에는 벼룩과 개나리꽃이, 본관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라일락꽃이 계절에 따라 운치를 더해주고 있는 등 건물이나 도로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종합대학교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학생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존건물명

을 보면 0동, 1동, 2동, 3동... 등으로 불려져 명칭상에서 학교에 대한 애착감은 전혀 느낄 수 없게 하며, 이밖에도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잔디밭도 비교적 많은 편이나 학생들 사이에 경계 이념이 없어 학과를 넘겨주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본교는 캠퍼스에 애착을 갖게 하고, 나아가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는 이름이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타 대학의 예를 들어 보면 「스승길」 「예을길」(돌아가는 길) 「다람길」 「로망스로드」 등으로 길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으며, 건물에도 「술기관」 「만화관」 등으로 학교를 상징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관광도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이름이 널리 불리고 있다.

이러한 학내 이름의 부재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애착심, 더 나아가 애교심 결여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사이에서 『캠퍼스에 이름이 없으면 대학생활에 무의미함을 준다』 『도로와 건물들에 이름이 없으면 친밀감이 덜겠다』 등등의 말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건물 및 도로에 합당한 이름 붙이기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제대인 모두가 여색하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하나하나씩 붙여나감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각 대학건물의 이름인 경우, 단과대학 나름대로의 특징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홍보적으로도 좋을 듯하며 각 단과대학별로 이름을 공모한다면 소속대학 학생들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더 갈 것이라 하고 본다. 또한 도로에는 그 도로가 향하는 방향이나 경유하는 곳의 특색이 담긴 이름 또는 「제주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리라 보는데, 가령 교문앞에서 도서관에 이르는 도로에는 우리 대학의 상징물인 사슴상이 있으면 「사슴로」라 명명하면 좋을 듯도 하다.

이와 아울러, 일부 학생들사이에서 학정관 앞을 마당골이 자주 행해진다고 하여 「마당터」, 아외를 약간 잔디밭을 「자유의 광장」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에 대해서도 모든 학생들이 더 깊이 인식하여 아껴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 대학에서 불려지는 대부분의 이름이 현상공모에 의한 것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볼 때,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제가 있을 때 마다 단합하여 대적하였는데 이러한 자주의 역량은 점차 성장하여 외부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체를 설립한 것은 자위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이 조직을 중심으로 사발봉문을 통하여 각마을 대표에게 전달하여 민중들에게 성공한 것도 나름대로의

따라서 제대인 모두가 참여의식을 갖고 「우리」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의력을 기대해 본다.

【강형동기자】

趙孟洙 記者의 르뽀집

「섬속의 섬」..... 제주도의 8개 有人島에서 뛰어드는 생생한 삶의 기록!!

제주의 섬

● 8개 유인도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현황의 심층적인 분석.
● 61개 유인도의 특징 및 소수현황등을 부록함
● 제주도의 섬, 그 모든 것의 기록.

대지 종합기술공사의 西歸浦 토지 부지조사 보도로 韓國記者賞을 받았던 趙孟洙記者의 역작!!

●...섬속의 섬이 갖는 의미는
●...생생한 섬의 개성들이 있고 역사 시대 이후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섬이기에 그들은 어떤생각을 하고 있으며...섬도백이,들의 버려진 서린 섬의 육성은 어떤 소리인가

○...섬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료로서, 생활상의 필요에서 섬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접근의 길잡이로서, 濟州人이라면 그들의 삶의 현장을 가늠해 보는 기회로서 이 책은 일독의 가치가 있을 것. (申幸澈교수의 서평중에서)

도서출판 조약돌 3천 5백원

秋史 김정희 實名小說

寒圖

吳成贊 著

추사 탄신 200주년을 맞아, 추사의 향토색 짙은 작품을 많이 써내고 있는 작가 오성찬씨가 그의 고향에서 9년 동안 유배생활을 한 추사 김정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

이 작품은 흔히 전기류 작품이 빠지기 쉬운 형식적인 담담함과 교훈적의 내용을 벗어나, 서정성 넘치는 아름다운 압축된 문체와 자연스럽고 산뜻한 구성으로 독특한 관점에서 추사의 일대기를 실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 밑을 흐르는 추사의 인간미, 변함없는 따뜻한 우정, 실험정신에 입각한 철저한 할리정신과 그 외에도 제주인들의 애절한 생활상과 풍물, 풍광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읽는 이의 가슴에 잔란 감동을 가져다 준다.

특히 유명한 추사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시는 가슴 품을 절한 절정이다.

크라운판/300면/값 3,000원
東光出版社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 719-5006-5174

濟州文化의 再照明

梁淳熙·金順澤의 지음

이 책은 세계평화교수협회 제주지회가 83년 11월에 제1차 지역 학술회의 세비나를 열고서부터 86년 4월 제6차 지역학술세비나의 결과까지를 한 데 모은 것이다.

제1차는 「국제화와 제주도」, 제2차는 「제주 문화의 제모형」, 제3차는 「제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제4차와 제5차는 제주도의 환경문제, 제6차는 「추사 김정희의 제모형」 그의 탄생 2백주년을 맞이하여」 등으로 그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발표된 결실이다.

...머리말 중에서

도서출판一念刊/값 3,500원
구내 서점에서 판매함

姜通源詩集

上流와 下流

梁淳熙의 지음

「上流와 下流」는 상징적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 自然이라든가, 문화 文明이라든가, 인류의 歷史, 그리고 현대의 인간과 인사의 계반·양상등은, 나에게는 어는 것이나 일정한 패턴으로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국면으로 한 없이 변천하며 江流과 같이 흘러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이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긴밀하게 연쇄되어 깊은 영향을 주면서, 有形無相으로 無常하며 무형 무상한 가운데 개개의 실재적 의미를 갖는 하나의 價值로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대상이 되고 讚美와 批判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인식되었다...

—自序중에서—

도서출판 혜진서관刊 / 값 1,800원
구내서점에서도 판매함

특별기획

제주개발에 가려진 실체 I - 뒷전에 밀려난 중산간개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제주도 개발바람은 이땅을 하루가 다르게 발바꿈시키고 있고, 특정지역제 주도종합개발계획이 지난해 확정되면서 제주도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개발의 이면에 가려진 실체를 점검해 보는 것은 더 나은 제주도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어 본사는 지난해에 「2천년대로 가는 길목...문제의 진원지 찾아서」에 이어 「제주개발에 가려진 실체」를 기획해 보았다.

-편집자주-

■ 文物와 農畜의 옛 중심지

곳에 따라 멀리 바다가 어렴풋이 보이며 한라산의 기생하산인 「오름」들이 동글동글 솟아있고 광활한 초지가 펼쳐진 곳, 그곳은 옛부터 中山間이라 불려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강한 통일성을 갖는 특이한 지역구조를 보이는 제주도는 예전부터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로 3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왔다. 보통 표고 2백~6백미터를 중산간지대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2백고지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기반을 2백고지 이상의 지대로 삼고 해안에 인접해 있지 않은 마을은 중산간 마을로 보고 있다.

그럼 경우에 중산간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전체인구의 10%에 약간 못미치는 약 4만명이며, 도내 1백9개 부락중 11%인 22개 부락이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고, 총 18만 1천 9백52ha가 되는 본도의 전체 면적중 31.5%인 5만 7천 7백ha가 중산간에 속한다.

지금만 해도 후퇴되었지만 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제주도 문화와 農畜의 중심지로서 행정중심지였던 마을도 많으며 마을마다 매우 유서가 깊다. 아울러 그곳은 아직까지 제주도적인 냄새가 해안보다 훨씬 강하게 풍기는 곳이기도 하다. 1900년대 초반까지 이 지역은 당시 95개 자연부락에 5만

1900년대초만해도 95개 자연부락에 5만여 인구가 살았던 중산간 지대는 해안주도로 개설과 4·3사건의 피해로 급격히 쇠퇴했다

여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제주도 전체인구가 15만명 내외였던 것을 보면 오늘날에 비해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인구 15만명내외라는것은 1883년 인구가 9만 5천 1백31명이고 1923년 인구가 20만 9천 18명인 것에 비추어 추정한 것임. 1884년부터 1922년까지는 인구조사 기록이 없음)

그런데 그렇게 융성했던 중산간 지대의 마을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옛날의 면모를 잃기 시작됐다. 중산간 마을이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해안부락 중심으로 1백81개의 해안주도로(제1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부터.

4·3사건은 중산간이 쇠퇴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른바 폭도들이 한라산을 기점으로 점거하자 중산간주민들은 戰禍를 피해 해안마을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서 낯에는 토벌군이나 경찰에게도 해를 받지 않기 위해, 밤에는 폭도들을 피해 숨어 살아야만 했는데, 중산간지역 사람들이 4·3사건당시 어쩔 수 없이 숨어 살다가 폭도나 토벌대에게 애초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4·3사건이 끝나자 중산간은 완전 폐허화했고, 고향을 찾아온 일부의 중산간 주민들은 황폐한 산의 터전을 다시 가꾸어 왔다.

■ 빛나던 개발계획

60년대이후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한 중산간에 대한 개발계획은 4·3사건등으로 폐허된 상태를 복원하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보에 주력해야 했다.

지금까지 중산간에 관계된 개발정책으로는 1967년도의 제주도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을 비롯, 1968년의 제주도중산간종합개발계획, 1973년의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었다. 이러한 개발정책은 경지개간과 토지조성같은 토지개발 및 이용, 도로·용수등의 기반시설 마련, 성관악·성읍·관음사등의 관광개발, 취락조성·정비및 취락구조개선사업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사실상 백지화되어 유명무실화한 것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계획에 빛나던 개발이 된 것도 비일비재했다. 1968년의 중산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주축단지 및 양향단지 조성사업은 목적에 빛나던 개발이 되고 만 하나의 사례다. 이때의 취락조성사업은 중산간, 양향단지, 양향양향단지, 하에 공적개발단지를 3개 단지에 7백20ha의 농경지를 조성하고 1백30세대를 입주시킨 개척단지 조성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이들 마을은 단지조성 목적에 부합한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당초의 단지조성 목적과 전혀 다른 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그 원인은 입주자의 열성성이나 교육 부족에도 문제가 많았으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즉, 각종 제주도 개발계획이 유명무실화했던 것처럼 중산간개발계획도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중산간개발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하겠다.

지난해 확정된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중산간에 대한 개발을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았으나, 그 계획중 중산간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간추리면 △개발할지 여부 5천ha를 개간하여 농지를 확장하고 초지 1만ha를 신규 조성한다 △2우회도로의 연장도로 7개구간 29km, 중·사부 산업도로 32km를 2차선으로 포장하고 보조도로망과 농로를 확충한다 △중산간지역의 지하수를 개발하며 列雁지수지와 어승생하류지수지를 건설한다 △중산간부락의 주택을 개량하고 4개부락을 대상으로 취락구조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송당동 2개지대 1.85km를 관광단지로 설정하여 집중개발한다는 것 등이다.

■ 유·유지 활용에서의 문제점

중산간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역시 미개발지 또는 유·유지의 활용문제라 할 것이다. 6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의 중산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발노력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정도로 많은 미개발지를 보유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이 이처럼 많은 미개발지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이 지역의 개발과정이나 시행,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있거나 기술적·제도적·경제적인 여러 개발제한요인이 가로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지역현실성 감안한 종합적 개발필요

60년대 이후의 개발 붐에서도 중산간은 늘 소외된 지역
유·유지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체이 무더기 지원과 일반농가에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8월 시·군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경우 82년 T그룹 산하업체인 장원산업에 농자원을 제공함으로써 6천만원, 83년도에도 1억 2천 7백50만원의 농자원을 제공했으며 남제주군에서도 같은 업체에 84년도 1억 2백만원, 올해들어 1억 1천 9백71원을 각각 농자원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한농가들도 「시·군이 일반농가에 농자원을 지원하면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특정업체에 농자원을 모두 제공해 버리는 처사는 형평을 잃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마을공동목장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남제주군에 귀속된 후 80년까지 임대형식으로 목장을 이용하다가 1980년 군이 주민과 상의없이 태평양화학측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한 사건이었다.



이 점차 중산간 토지를 잠식, 문폐화했다. 현재 43개의 기업목장중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9개의 기업목장이 외지인 개발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의 경우에는 토지분쟁이 꽤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됐다. 마을 공동목장을 한라산 중산간지역에서 백담동 근처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농경에 알맞게 나뉘어 있었으며, 일제 때 1백여개의 공동목장이 설치되는 등 마을공동목장제도는 제주도민 특히 중산간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박혀 있었다. 이들 공동목장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리·동·읍·면 단위의 공유재산이 부인되면서 국유지로 귀속되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마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국유를 주장하는 당국을 매우 혼란케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남제주군안덕면서평리 사건, 북제주군구좌읍서평리 사건, 구좌읍월정리 사건, 안덕면서평리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뿐만 아니라 육지부처들이 공공목장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농가들에게까지 개발사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서평리 사건을 85년 6월 8일자 中央日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배정된 국산차 농자원을 3억 9천 8백50만원이 특정개발그룹 산하에

해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 1백76명의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성사업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것은 이들 외지인들의 중산간임대임대농가 개발보다는 부지에 있었음을 비치는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중산간 개발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83년12월14일자)

초지 뿐만 아니라 중산간 저지대에 육지부처들에 의해 대단위 농장이 조성되어 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둘 잃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토지문제는 중산간 지대에 있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지역개발차원이 우선돼야

중산간의 개발은 여지껏 제주지역 개발에서 우선순위를 두었던 관광위주로만 되어서는 곤란하며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유·유지를 이용한 산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 사회발전연구소는 제주도와 학술연구를 제정, 올해 5월에 발

표한 논문을 통해 「제주도중산간유·유지의 개발 활용방안」을 경제·관광·사회·법제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3단계의 측면에서는 중산간 미개발지의 개발을 畜牛부문을 기간소득작목으로 하여 중산간에 근접하고 축산에 경험을 가진 개발농가와 그 공동체조직을 개발 주제로 삼아 추진하되, 공공적 지출을 요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생산 편의시설의 확충 그리고 기술교육으로서 품목별로 전문화된 과제중심의 현장교육을 정부가 뒷받침해 나가야하며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는 야외레크리에이션 장소로 활용하고 △사회복지측면에서는 共助의 이념이 자발적 참여와 협동의 경험과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각부락의 현실성을 감안한 共助(共助) 바람직하고 △법제적 측면에서는 특별법상 중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유·유지 개발을 위한 행정지도·행정지원 활동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유지개발지원법」이나 「제주도중산간지역개발지원법」같은 것을 설립, 개발주체가 지역주민이 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런 구에서도 피력했듯이 유·유지 개발을 포함한 중산간 개발은 우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로, 용수문제의 개선과 함께 거점개발을 위한 취락구조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총연장 179.5km의 중산간우회도로는 현재 불과 49km(27%)가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12km가 포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면 61km(34%)가 조성된다. 제주—보성간 서부산업도로는 완전 포장되어 있고, 제주—성읍간의 동부산업도로는 아직 일부가 기초장 상태이며, 제1우회도로와 제2우회도로의 연결도로(중산간부락과 해안부락과의 교통로)가 아직도 미포장된 곳이 꽤 있는 실정이다.

중산간 개발은 도민복지의

균형화와 미개발지에 대한 막대한 개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도로·용수 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제2우회도로가 단지 중산간 부락의 연결이 아니라 제주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도내 교통에서도 제1우회도로에 버금가는 비중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1우회도로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지역에 대해 종합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초부터 시작된 용수개발은 현재 어승생에서 交驛을 통해 1일 1만 3천m³/D의 물을 제주시와 중산간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중산간지역의 공급량은 약 4천m³/D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중산간 일부지역에서 지하수도 개발되어 총 2천 8백20m³/D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산간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수와 용수수의 개발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의 극대화방안도 필요하다. 중산간의 일부지역이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과수원과 田作을 중심으로 한 耕地面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2우회도로를 중심으로 미개발지 개발에 힘쓴다면 과수원이나 고소득작물재배로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표선면 토산리 등지에서 활용했던 땅에 대단위 화력발전지가 조성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귀감으로 삼을만 하다.

아울러 이와같은 제반중산간지역의 개발정책은 미개발지가 많은 것을 감안, 거점개발방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할 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주해 있는 마을들을 거점으로 한 개발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꿈이 서린곳으로

1900년대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슬픈 고난과 설움, 소외를 함께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대대로 일구고 갈던 땅, 하얀 땅들도 하나둘 외지인에게 팔 방목려나 그들을 기업목장 또는 농장의 고용인이나 막일꾼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제 중산간은 막대한 개발가능성에 비해 황폐사라 도, 도민 전체의 복지의 균질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꿈이 서려있는 실타래가 가꾸어져야 할 것이다.

【김동진기자】

한글하루

민족유산인 독립기념관

두번 읽을 수도 있어

이번 여름, 블랙지수가 우리를 섬나게 할 만큼 무겁게 치솟았었던 것은 독립기념관의 화재사건일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人災였고 實災였다.

이역만리에서 이 민족과 함께 살아온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에 참여했던 해외거주 교포들과 4천만 국민들은 독립기념관 화재소식에 큰충격과 함께 착잡한 심정을 느낄 것이다.

기념관과 기념비, 문화전당은 한 민족의 열과 열의와 지남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어느나라든 기념비, 기념관과 문화전당은 민족의 말할 수 없이 큰 정성을 쏟는다. 외국의 경우, 자유중국을 蔣介石總통이 눈감아 국내인과 화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얻어만 4년 6개월이 지난 80년 4월에中正기념관을 개관했다. 施工은 국영건설 업체에서 맡았는데 이 기념관은 이같은 국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대만 건축물에서 있어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中正기념관을 미국의 워싱턴 제퍼슨 기념관과 심지어 인도 타지마할로도 견줄만큼 자랑하고 있다. 또 L.A.는 오는11월 미국 최초의 현대미술관 모카(MOCA)와 제2 플렉시박물관이 완공되는 등 이처럼 규모가 크고 웅장한 시설들이 세워졌으면서도 이중 5년내에 완공된 것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철야 및 주말공사와 가연성재료 사용의 과다로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 화재에 계속 공사와 안전관리 소홀을 막는 감시제도가 철폐되어 패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수백년 수천년을 기릴 기념관을 짓는 일에 한해 두세 달이 그렇게 길다고도 할 수 없다. 무엇이든 시간이 무엇이든 그렇게 아깝다고 서늘한지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수백년 수천년을 기릴 기념관을 짓는 일에 한해 두세 달이 그렇게 길다고도 할 수 없다. 무엇이든 시간이 무엇이든 그렇게 아깝다고 서늘한지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수백년 수천년을 기릴 기념관을 짓는 일에 한해 두세 달이 그렇게 길다고도 할 수 없다. 무엇이든 시간이 무엇이든 그렇게 아깝다고 서늘한지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옛날에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 또는 일요일이 생긴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쉬는 것은 창조적 법칙이다. 그러기에 이번 독립기념관 화재는 무지극한 전염이나 기술자의 잘못만이 아니다. 무엇이든 지의 지시로 해낼 수 있다는 비록 어떤 관료적 保守主義들이 바로 이런 實災의 원인이다. 문공부와 기념관 건립추진위는 기념관내 원형복원의 영사기카메라, 스크린을 향기 등 중요장비를 모두 일본제품을 도입했고, 일본인 기술자들의 손으로 완공했다고 하며 게다가 개관 기념 작품으로 만든 영화사라는 「나의조국」마저도 일본인 영화촬영 기사들이 만들었다고 하니 이것은 보아도 일제와 싸웠던 독립지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할 일문들에 흠뻑 젖어 일하신 분들의 정신에 헌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그 관료의 책임은 주무장관 인정정도로는 결코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일을 잘못 처리하면 오래오래 그 잘못이 역사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이번 화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독립기념관을 두번 읽게 될 것이다.

【劉】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

중앙도서관 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902-4

(株) 삼 건 사

代表 鄭 德 容

<삼건사가 신축한 중앙도서관 전경>

社科大·經商·法大로 분리작업 추진

화학·생물공학과·식품영양학과 신설 요청

본교는 지난 7월 24일 87학년도 학과 증설, 개편 및 단과대학 개편, 학생정원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조정안을 문교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번에 본교가 신청한 정원조정안을 보면 졸업정원인 30명인 생물공학과를 농과대학에 졸업정원인 40명인 식품영양학과를 이공대학에 신설하여 70명을 증원한 것을 비롯, 문교부에서 인준예정인 자연계학과로 전환하도록 한 지질에 따라 야간강좌부의 행정학과, 경영학과와 이공대학의 생물공학과, 식품영양학과를 각각 10명씩 증원시켜 졸업정원인 30명인 화학공학과를 이공대학에 신설키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본교는 지난 7월 24일 87학년도 학과 증설, 개편 및 단과대학 개편, 학생정원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조정안을 문교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번에 본교가 신청한 정원조정안을 보면 졸업정원인 30명인 생물공학과를 농과대학에 졸업정원인 40명인 식품영양학과를 이공대학에 신설하여 70명을 증원한 것을 비롯, 문교부에서 인준예정인 자연계학과로 전환하도록 한 지질에 따라 야간강좌부의 행정학과, 경영학과와 이공대학의 생물공학과, 식품영양학과를 각각 10명씩 증원시켜 졸업정원인 30명인 화학공학과를 이공대학에 신설키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학문의 孤島」에서 탈피, 안간힘 방학중, 국제노동법학회등 6개 회의 유치

본교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학문의 孤島」에서 탈피하기 위해 여름방학중인 7월 한달동안 「제주도와 하와이」의 도서지역 개발협력이란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시, 전국 국립대학 교무처·과장 협의회, 국제노동법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식물보호학회 등 6개의 국제 및 국내학술세미나와 협의회를 본교에서 유치하였다.

본교 ROTC후보생 하계입영훈련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슬포 ○○부대에서 실시했다.

한편 7월 11일 연남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전국대학생 수확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연남대학교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경시대회에는 1백70여명의 전국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1분야(수학 전공자)와 제2분야(비수학 전공자)로 나뉘어 실시됐는데 김양은 제1분야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연남대학교 총장상 및 장학금 10만원을 받았다.

대한전기학회(회장: 白龍鉉)가 주관하는 86년도 하계종합학술회의가 지난 7월 10일 3박 4일간의 기간에 걸쳐 본교에서 열렸다.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차정배사장의 「에너지와 국가전략」이란 특별강연과 「정보와 통신」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러한 참석자들은 사법대학에서 15개 분과로 나뉘어 본교별 학술회의를 가졌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尹福秀(서울가정병원) 「부동산의 2중당도와 원상회복」 △吳然熙(고교수) 「법률위법성에 있어서의 일일이익과 변론주의」 △韓三寶(제주대) 「제주도에 있어서의 재판관 이혼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의식물보호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성적발표학술대회에 대한 학사경고와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지침 통산 3회에 걸친 학사경고자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식물보호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성적발표학술대회에 대한 학사경고와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지침 통산 3회에 걸친 학사경고자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식물보호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성적발표학술대회에 대한 학사경고와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지침 통산 3회에 걸친 학사경고자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장 趙鍾步 연구발표회가 지난 7월 5일 본교 사법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식물보호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성적발표학술대회에 대한 학사경고와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지침 통산 3회에 걸친 학사경고자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식물보호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성적발표학술대회에 대한 학사경고와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지침 통산 3회에 걸친 학사경고자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식물보호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성적발표학술대회에 대한 학사경고와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지침 통산 3회에 걸친 학사경고자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사법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2일 본교 인문대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식물보호학회(회장: 金龍漢)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성적발표학술대회에 대한 학사경고와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지침 통산 3회에 걸친 학사경고자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렸다.

금로한회장과 학회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창립30주년 기념으로 열렸는데, 徐庚基교수(濟州大)의 「어촌마을의 사회구조와 법규범」의 4편의 논문등 5개논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연구논문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이날 발원된 文天祥장학금담당관은 68년 8월 동국대법대를 졸업했으며, 82년 2월에는 고려대학교법학원을 수료, 지난 10여년간 국내 일선교사로 봉직하고 있다.

金宗業교수 정년퇴임

25년간 제주문화사연구에 공헌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본교는 내년도 각종 시설사업비로 총16억 5천 6백33만 8천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의 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

문교부에 요청한 시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학 신축

아라·我羅

○...돈에 우는 대학 4년의 추억들.
그동안 불의를 빚어온 졸업앨범문제가 당초의 수의계약가격보다 2천원인 조정된 2만 3천원에 재차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공개입을 해야 한다는 世論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집안 강행하는 졸업준비위원회, 과연 누구를 위한 졸업준비인지...
○...대학내의 부당한 투기?
중앙도서관이 새전물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서관 공간이 재배치되었는데, 도서관이 이전되면 세를들문제가 대폭 해결된다던데 솔깃한 것은 달리 정작 책을 배정받은 세를들은 소가목으로 팔을 수 있을 정도.
그에비해 높은신분들이 집무하는 사물들은 감의실을 차릴 수 있을 정도라

누굴위한 졸업준비인지

지도교수님을 찾아갔노라 해마다 발학때면 종적을 감추시는일명 현세교수님(?)를 때문에 몰상이었다고.
페르스 미야를에게 교수찾아주기 운동이 시급한 듯하여 아라구 한다.
○...1백4계단을 오르면 진리의 심장부에.
전 아라인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규모의 중앙도서관이 2학기 개강과 더불어 개관을 하게 돼, 학원들의 학구열을 북돋을 터인데...

인문 사회과학·교양서적

시대의 양심을 일깨우고 민족의 내일을 이끌어가는 대동

9월5일 개점!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역사발전의 담당자인 民衆의 시각으로부터 나오며 사물을 역사적·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과학적 사고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마치 과학적 인양 선전·전파되어 우리앞에 당면한 문제의 인식과 해결은 왜곡 표출 되어지는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大同은 이러한 이땅의 질곡을 딛고 치솟아 역사와 사회 속에 뿌리내리는 지적운동의 한 터울이 되고자 합니다.

대동

제주시 2도1동 1496~3, 남문로터리 민수당약국옆
대표: 오 만 식 (동문·30회)
전화 53-8288

